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

중기부, 추경 494억원 확보 통해 점포철거비 1만개사·재기사업화 250개사 추가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 공고를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개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개사를 추가하여 총 4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박대터 기부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사를 모집한다.

다음으로,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재기사업화에 참여가 어려웠던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소상공인'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재기사업화와 마찬가지로 경영진단, 1:1 전담전문가(PM) 등을 지원하고,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이수에 성공(재창업)한 소상공인은 사업완료 후 발급되는 수

료증(1개월 이내)을 새출발기금에 제출하면 등록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가 즉시해제 된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황영호 단장은 "이번 추가지원 및 공공정보 등록자 지원 등을 통해 혜택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기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hiz.or.kr)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익산군산축협, 가축질병 선제 차단 하계방역약품 전격 공급

익산군산축협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 농가의 건강한 가축 사육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체 조합원에게 64백만원 상당의 하계방역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번 하계 방역약품 공급은 폭염과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급증하는 파리, 진드기, 모기 등 해충 방제와 가축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축종별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여, 축종별 맞춤형 구충·살충제, 소독약 등을 공급한다.

약품 및 자재는 6월초부터 일시적으로 10일까지 공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심재집 조합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여름철 가축 스트레스와 전염병 위험 속에서 조합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환경 개선과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군산축협은 조합의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방역약품 공급 외에도 하절기 폭염대비 가축사양 관리, 질병예방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돕고 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상의, 전북지역일자리지원협의회 출범

전대식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정부기관 등 전주·완주산단 기업 중심

전주상공회의소는 28일 전북지역 기업들의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 일자리지원협의회를 출범 시켰다.

전북지역일자리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주상공회의소 전대식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와 정부기관, 그리고 학계, 전주·완주산단협의회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기관과의 의견 공유 및 협조를 통해 기업 인력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지역내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및 균형있는 일자리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각 기관별 공동 협력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최근 기업들의 자금사정과 더불어 인력수급이



전주상공회의소는 28일 전북지역 기업들의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일자리지원협의회를 출범 시켰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지역일자리지원협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활발한 사업전개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업 인력제공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화과기부, '미래를 여는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화에서 '미래를 여는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를 과기부와의 함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R&D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 민간 주도 기술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명환 여수플랜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김형영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이시희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R&D 지원예산 확대,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인력양성 지원, △중소기업 업종·공정별 AI 확산 지원사업 마련, △중소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등 건의과제 15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진형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가 R&D 정책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 기술 역량과 의지가 충분한 중소기업이 참여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수준이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정책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본 회의가 중소기업의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신품종 '스파이더' 생산성 14%↑

농진청,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전 과정 국산 기술로 완성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 국산화 기술 체계'를 구축, 국산 품사료 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이 농업연구개발(R&D) 혁신 과제로 추진한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결과로, 국산 품사료 생산 전 과정을 국산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사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품사료 산업계의 약점으로 작용했던 품질 불균일 수입 의존 가격 변동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스파이더(RDA Spider)'를 개발해, 올해 처음 공개했다.

'스파이더'는 건물수량이 헤타르당 10.1톤으로, 수입 품종 '플로리다 80' 대비 약 14% 생산성이 높다. 또한, 벼 수확 후 재배가 가능한 답리작 체계에도 적합하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전남 영암, 경남 진주, 경남 고성, 전북 남원, 충남 논산) 총 42헥타르 면적에서 실증 재배 중이다. 종자 업체 2곳에 기술이전을 완료해 보급 기반

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한 '종자 건조기'는 드립 회전과 열풍을 이용해 국내에서도 1기당 하루 2톤 이상의 종자를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다.

'일팔파', '볼 페스큐', '사료피' 등 다양한 사료작물의 종자도 건조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채종 시기가 장마철과 맞물리고 건조 시설이 없어 어려웠던 종자 건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개발된 열풍건조 생산기술을 이번에 처음 전주기 기술 체계에 통합해 생산, 유통과의 연계를 갖췄다.

열풍건조 생산기술을 통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분 15% 내외로 빠르게 건조시켜 품질이 균일하고 저장성 높은 건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입 건조 대비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약 30% 저렴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오상근 기자

'2025년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바이오진흥원, 우수아이디어 평가회 개최... 5개사 선정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인 '2025년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 평가회'를 개최했다.

전북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는 해양수산부의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 관련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실질적인 창업 실행을 지원하는 전주지역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해양수산 법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법 지도, 아이디어 사업화, 선배 창업가들과의 만남 등 총 8회에 걸친 집합교육과, 국내 박람회 견학 및 창업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여 교육생들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6일 진행된 '우수 아이디어 평가회'는 13명의 아카데미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고도화한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아이템의 시장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5개 창업팀에게 총 2,000만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시제품 제작, 소비자 테스트, 시장 검증 등 본격적인 사업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